신한카드, 업계최초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혁신 주도형 경제성장 유도 높은 평가

신한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국가생산성대상 단체부문 종합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생산성대상은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업 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해 모범적인 생산성 혁신을 달성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제도다.

시상식에 참석한 (왼쪽부터)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문동권 신한카드 경영기획그룹장, 윤승원 신한카드 브랜드기획팀장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는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왔다. 카드업을 넘어서는 혁신 주도형 경제 성장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단체부문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신한카드는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카드 결제연계 해외주식 소액투자 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 서비스 ▲렌탈 중개플랫폼 ▲외국인 해외 송금서비스 등 단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7건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선정돼 6건을 상용화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국내 로봇 경쟁력 갖추려면

기자 수첩

채 윤 정 〈산업부〉

지난달 말 개최된 '2020 로보월드'에서 국내 로봇 기업들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로봇들을 시연하며 기술력을 뽐냈다. 자율주행 로봇은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로, 종업원을 대신해 음식을 날라주는 서빙로봇이 가장 빨리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주로 공급된 로봇은 국내 제품이 아닌 중국 대표 서빙로봇 기업인 푸두테크의 로봇으로, 이미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빙로봇을 주도적으로 유통하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전국에 250여대 공급한 서빙로봇도 중국 푸드테크 로봇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 로봇이 국내에서 선전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 있다. 이전 버전 제품은 로봇이 하단의 사람을 발을 피하는데 집중하다보니 상부에서 사람이 손을 뻗으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상부 장애물도 인식하는 등 성능이 개선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

특히 가격 면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하기 힘들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다. 로보월드에서 만난 VD컴퍼니 관계자는 "서빙로봇을 하루 2만원만 3년을 내면(월 60만원) 식당 주인이 로봇을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2160만원에 서빙로봇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서빙로봇이 5000만원 선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하지만 아직 중국의 서빙로봇은 식당 천장에 부착된 센서를 따라 움직이는 '천장 마커' 기술을 이용해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트위니 등 국내 로봇 업체들은 천장에 센서나 바닥에 QR코드를 깔 필요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봇을 내놓아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술력을 갖춘 국내 로봇 기업들이 제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인 만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가 AI와 데이터에는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하드웨어인 로봇에는 이 같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실외 로봇이 규제에 막혀 서비스가 어려웠던 것이 ICT 규제샌드 박스로 이제 막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만큼, 규제 완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echo@

전통춤 AR로 본다… SKT, '태평하기를' 캠페인

한국 전통춤 '태평무' AR 콘텐츠 제작

SK텔레콤은 문화재청과 한국의 전통 춤 태평무를 AR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태평하기를'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SKT는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왕비 또는 왕이 추는 춤인 태평무를 AR 콘텐츠로 제작, 점프AR 앱에서 공개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춤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AR 콘텐츠는 3D 볼류메트릭 비디오 기술을 보유한 SKT의 점프스튜디오에서 제작됐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 명인이 세상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SKT는 '태평하기를' 캠페인의 일환으로 태평무 AR과 K팝 대표 안무가 리아킴의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도 공개한다. 리아킴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양성옥 명인에게 직접 태평무를 배우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AR 태평무와 리아킴이 펼친 콜라보레이션 공연의 한 장면. /SK텔레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13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집안의 번성도 내 대에서 마칠 것 같다. **48년생** 책임진 일이 쉽게 처리되나 성과는 천천히 온다. **60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도를 걷자. **72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가지 마라. **84년생** 미래에 닥칠 일이 왠지 불안.

소 **37년생** 아랫사람의 직언이 부담스럽다. **49년생**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 **61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 **73년생** 작은 실수를 확대하여 비관하지 마라. **85년생** 바쁘더라도 우편물을 확인하는 습관을.

호랑이 **38년생** 아들이 잘되니 집안에 손님이 많아진다. **50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운이 열린다. **62년생** 경험자의 학습을 이어가는 것도 현명. **74년생** 변화 속에서 반드시 기회가 온다. **86년생** 당장은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해보라.

토끼 **39년생** 남편이 먼저 가도 따라갈 수도 없다. **51년생** 칭찬을 남발하면 실없어 보인다. **63년생** 집에 가면 가족 문제로 근심 나오면 반기는 곳 없어 고독. **75년생** 타협의 연속이다. **87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도움 받는다.

용 **40년생** 돈은 부족해도 의리는 깊어야 할 터. **52년생**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후회 없다. **64년생**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76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88년생** 웃을 준비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 된다.

뱀 **41년생** 기술 배울 때 처음은 초보 수준 힘낼 것. **53년생** 살면서 생긴 지혜가 도움을 준다. **65년생** 공이 헛수고지만 공짜가 없으니 기다려보라. **78년생** 첫 숟가락에 배부르기 힘드니 조금만 힘내자. **89년생** 뛰어나게 아름다우니 성형은 글쎄.

말 **42년생** 자식 교육에 조급해하지 말고 오랜 세월을 지켜봐야 할 것. **54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66년생** 왕 자신감에 빚만 진다. **78년생** 달리려고만 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라. **90년생**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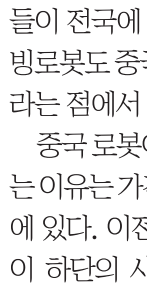
양 **43년생** 길을 헤매지 말고 아랫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해보자. **55년생**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볼 때. **67년생**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79년생** 서북 이사는 무방하다. **91년생** 전심전력을 다 해보면 답이 나옴.

원숭이 **44년생** 믿음은 약속에서 나온다. **56년생** 사랑 타령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다. **68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보라. **80년생** 목이 마르면 스스로 우물을 파보기도 해야. **92년생** 이성 상대를 너무 채근하면 튕겨 나간다.

닭 **45년생** 살다 보니 온갖 일에 많이 알게 되더라. **57년생** 지나온 세월이 그나마 행복했다. **69년생** 옛날 일을 잘 알면 오늘도 알게 된다. **81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대니 자제. **93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얻어라.

개 **46년생** 한낮의 꿈처럼 덧없는 인생이겠으나 남은 시간 다시 활용. **58년생** 주변 눈치를 보는 하루. **71년생** 가려는 사람은 붙잡지 마라. **82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도 크다. **94년생** 연인에게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돼지 **47년생** 지금의 재물은 과거의 고난에서 비롯해. **59년생** 모든 것을 혼자서 떠맡으니 심신이 피곤. **71년생**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83년생** 겉모양은 화려하나 실속 없는 하루. **95년생** 제발 이간질하지 말 것.



김상회의 四季

임금님의 제사를 지내는 종묘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켜야할 예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 온것이 바로 조상님에 대한 제사였다. 그 연유는 조상님의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영혼은 후손의 주위에 남아 영향을 주기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조상님께 고하고 보살펴 주시기를 빌었다.

그중에서도 오매불망 나라 걱정을 하던 임금님이라면 돌아가신 후에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여전 하리라 믿고 궁궐 옆에는 역대 임금님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지어 놓고 임금님이 직접 가서 제사를 지냈다. 그 사당을 '종묘(宗廟)'라고 하고 종묘에서 제사 지내는 의식을 '종묘제례' 라고 하였다.

이때 역대 임금님들의 치정과 업적을 기리는 내용의 가무를 연주했는데 이것을 종묘 제례악이라고 하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을 '일무'라고 했다. 오늘날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종묘는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또 종묘 제례악은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종묘는 그 당시 단일 목조건축물(건평2,270㎡)로서는 세계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건축물로 추정된다. 종묘에서도 중심건물이자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가 모셔진 '정전'의 각 신실에는 각종 음식과 술상이 차려지고 절을 하고 술을 따르는 제의가 펼쳐진다.

종묘제례는 왕이 밤중에 지내는 격식 높은 제사로 왕을 비롯해 왕세자 제관 문무백관이 참가하는 국가적 행사였다. 종묘는 '종묘사직'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교 국가인 조선의 왕실과 나라의 상징의 한 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하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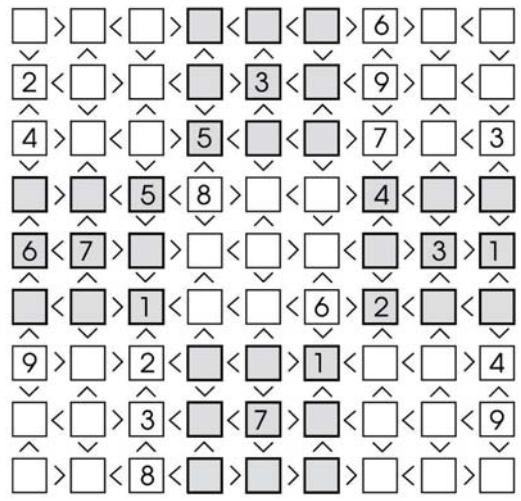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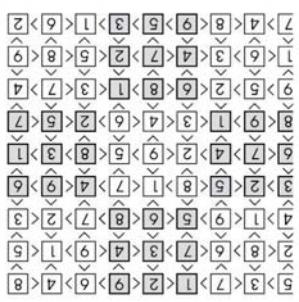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B		7		9	5		1	A
5	3				C		4	2	9	6	B
	6	A	1		B		5	8	4		7
	B		6	C	5	9	A		8	7	
		8				4	1	9	C		3
C			4	B	8	3	7	A		5	2
6	8		5	9	4	B	2	7			C
A		4	2	5	1				B		
	9	1		6	A	7	8	4		3	
8		B	9	A		5		C	7	4	
4	A	6	3	7		1				2	8
1	C		7	4		8		3			6



정답

2	1	3	B	8	7	4	9	5	6	C	A
5	3	7	9	B	C	1	4	2	9	6	B
9	6	A	1	3	B	2	5	8	4	C	7
4	B	C	6	C	5	9	A	1	8	7	3
3	7	8	2	A	6	4	1	9	C	B	3
C	9	B	4	B	8	3	7	A	1	5	2
6	8	1	5	9	4	B	2	7	3	A	C
A	5	4	2	5	1	C	3	6	B	9	8
7	9	1	C	6	A	7	8	4	2	3	5
8	2	B	9	A	3	5	6	C	7	4	1
4	A	6	3	7	9	1	C	B	5	8	4
1	C	5	7	4	B	8	A	3	9	2	6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5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683호